광주시 '亞재해 긴급 구호협의회' 만든다

대규모 지진·태풍 등 재난 지역 긴급 구조·복구 지원 활동위원 30명 규모···5명은 공개모집 29~31일 접수

광주시가 아시아에서 빈발하는 대규모 지진과 태풍 등 재해 피해지역을 돕는 민 관 거버넌스 형태의 '광주 아시아재해 긴 급 구호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재난 피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세계 속의 평등한 인권도시'의 실현을 위해 지 역의료기관과 국제교류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 의회'를 구성하고,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

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의약 5단체, 의료기관, 국제교류협력단체, 언론·방송, 대학 등을 대표하는 3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위원 임 기는 2년이며, 연 2회 정례회의와 함께 수 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 재해 발생시 광주지 역에서 산발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추진 해왔지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의료관련 단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주 긴급구호 팀을 선발하고 현지 의료봉사를 위한 의 사·시민 자원활동가 모집해 아시아 재난 지역에서 NGO의 긴급구호와 재난복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긴급구호활동가는 30명 규모로 구성되 며,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기 관과 국제교류 단체의 추천을 받아 25명 을 선발하고 공개모집으로 5명을 추가할

공개모집에는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으 로 공적개발원조(ODA)관련 분야에 2년 이 상 종사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 gwangju.go.kr) 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 받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인권평화협력과 실), 팩스(062-613-2069), 이메일(kisergx @korea.kr),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경력,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해 11 월 초 위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 광주시 인권평화교류담당은 "단 순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시아인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나 응답한다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확산시켜 광주의 도시 브랜드까 지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시범 시행

$6 \sim 36$ 개월 미만 아동 대상

광주시는 19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도 지정 기관 등에 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광주육아종합지원센 터에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 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 만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이며,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다. 맞벌 이 가구는 정부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 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에, 전업주부 가 구는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 유아를 등록한 후 인터넷이나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할 수 있 다. 당일 이용할 때는 광주육아종합지원 센터(062-714-3636)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남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은 "시간제보육시범사업으로 단시간 시간 제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부 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미래를 담는 도시락(都市樂)'

25일 '푸른 광주의 날' 행사…95m 대형 김밥 눈길

푸른광주21 이벤트 다양 95개 행정동 화합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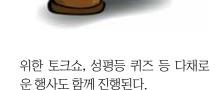
푸른도시 광주의 '미래를 담은 도시 락(都市樂)' 행사가 열린다.

푸른광주21협의회는 "25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 앞 광 장에서 '미래를 담는 도시락(都市樂)' 을 주제로 2014 푸른광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청 앞 무대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500여명이 힘을 모아 95m길이의 김밥을 만든 뒤 점심식사로 나눠 먹는 퍼포먼스도 진 행된다. 95m는 광주의 행정동수가 95 개라는 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광주 공동체가 함께 화합과 협력을 위해 함 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한 자원 순환나눔축제가 열리고, 광주시청 앞 잔디밭에서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캠 핑'행사와 함께 도시숲 박람회도 함께 펼쳐진다.

이 외에도 지구를 살리는 초록밥상 과 채식을 위한 시식행사, 마을만들기 성과 전시회,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또한 부대행사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느릿느릿 자전거 타기, 재생지를 활용한 딱지치기, 전통놀이 체험, 마 을 런닝맨 등이 벌어진다.

박경린 푸른광주21협의회의 상임 회장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광주 공동체 의식이 더욱 크게 확산하는 시 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푸른광주21협의회(062-413-4175~8, http://www.greengj21. or.kr)로 연락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최근 쌍촌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시민들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배식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공사 노동 조합과 주경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나누미 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해 독거노인와 장애인, 새터민 등에게 떡국 등을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해 배식장소에 나오지 못한 노인·장애인 등에게는 배달봉사도 했다. 도시공사는 오는 11월 7일에는 금호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4억4200만원 국비 지원 받아 4개 복지시설 4880㎡ 숲 조성

광주시는 19일 "녹색사업단이 시행한 '2015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42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

선정된 시설은 ▲서구 노엘실버타운 ▲ 남구 한희효사랑의집 ▲북구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집 ▲광산구 백선바오로집 등

4곳이다. 시는 4개 시설 4880㎡에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에 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과 복지가 하나 되는 나눔숲을 조성하게 된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녹색복권 발행 수 익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산림 문화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지난 7월 공모를 시작해 1차 시 자체 평 가와 2차 녹색사업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소외 시설에 숲을 조성해 소외된 이웃과 지역주 민들이 더불어 휴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35 억을 지원받아 에버그린실버하우스 등 20 개 복지시설과 운암3근린공원 등에 나눔 숲을 조성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 시장, 공무직·비정규직과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직원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 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임기내에 광주시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냉 난 방 전 문 점 대표번호 1644-8983

